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자원조달 등을 상세히 설명해왔음

〈보도 주요내용〉

MBC는 10.16일 보도를 통해 ‘24.1월 석유공사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성공률은 ‘19%’이며 ‘보통보다 조금 더 높다’로 평가 되었다고 지적함. 아울러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명 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음.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자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음.

탐사성공률은 자원안보, 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시, 유망구조별 구체적 탐사성공률 수치를 공개하기 부적절하므로 대략적 수치로 약 20%를 밝혔으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는 지난 정부 시기인 ’21년에 시추한 ‘방어’ 구조 대비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향상된 분석기법을 활용한 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함.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	책임자	팀 장	조진화	(044-203-5185)
		담당자	사무관	김태우	(044-203-5186)